

한국어의 명사 I

홍재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한국어 명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는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은 명사를 다른 품사부류와 구별하여, 또 한편 다른 언어의 명사와 대조하여, 특징을 짓고 한정해 보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는 명사를 형태·통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그 의미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고, 그 분류상의 유형론적 특성과 주요 하위부류의 언어적 행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명사의 정의: 의미적 기준

단어를 여러 종류로 나누고 그것들을 특징짓는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품사론에서는 (1)명사와 동사의 구분은 보편적이며, (2)명사는 흔히 사람이나 장소 또는 물건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사물의 명칭으로 쓰이는 단어의 부류로 정의되어 왔다.

(1)의 판단에 대한 검증은 언어유형론의 쟁점 사항 중의 하나인데—명사/동사의 구분이 없거나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관찰되는 일부 언어들이 있기 때

문에—, 한국어의 경우는, 두 부류가 단어의 층위에서나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통사 구성인 구(phrase)의 층위에서나 명백히 그 속성이 구분되어 문제 될 것이 없다. 한국어에서는 명사로만 쓰이는 단어(책, 꽃, 도착, 도망, 애)와 동사로만 쓰이는 단어(믿-, 걸-, 뛰-, 다니-, 아끼-)가 확연히 구별되어 있다.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교차 사용이 요구될 때에는, 동사어간에 -(으)ㄴ/-ㄹ과 같은 파생접사를 붙여 명사로 전환시키거나(믿음, 땀), 반대로 명사를 하-, 치-, 떡- 등의 동사와 결합시켜 합성동사를 구성할 수 있다(도착하다, 도망치다, 애먹다).

(3)의 쌍들과 같이 일부의 단어들은 동일한 형태가 두 가지 범주로 쓰이기도 한다.

(3) 말/말-, 떡/떡-, 물/물-, 밀/밀-

그러나, 예컨대 명사 물(물을 마시다)과 동사 물-(개가 아이를 물었다)은 그 의미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없이 각각의 명확한 의미 특성(사물/행위)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의 판단을 적용한 범주의 구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어에는 예외적으로 (4)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명백한 의미적 연관성을 갖고 명사/동사의 이중적 용법을 보이는 사례가 있다.

(4) 되/되-, 빛/빛-, 신/신-

이 경우에도, 예컨대 명사 빛과 동사 빛-의 구분은 구체적 사물(도구)과 행위(도구의 사용)라는 의미적 속성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명사는 의미적 기준에 의해 엄격히 정의되고, 또 모든 명사가 이와 같이 공통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용이하게 한정될 수 있는 것인가? 다음과 같은 여러 사례의 관찰은 명사가 의미적 기준에 의해서만 충분히 정의되고 한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머리를 빗다와 같은 예에서 빗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는 빗-은 분명 동사이지만, 빗질, 다리미질, 망치질, 걸레질, 톱질 등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는 많은 단어들이 동사가 아니고 명사이다. 더 나아가 달리기, 쓰기, 건설, 출판, 판매 등등 다양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모두 명사이지 동사는 아니다.

— 조금 더 관찰의 범위를 넓혀 보면, 명사는 행위 이외에도 사건(전쟁, 지진), 감정(화, 중오), 상태 변화로써의 과정(죽음, 해빙, 근대화), 태도(절잔, 얕전, 호의적), 상태(믿음, 정적, 피로), 속성(아름다움, 중요성), 크기(높이, 무게, 밀도) 등등의 다양다기한 개념들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두를 사물의 명칭으로 해석해 내기는 용이하지가 않다.

— 더구나, 것, 반, 줄, 또는 마리, 개, 멸과 같은 의존명사나 일부 사전에서 명사로 범주화한 국제, 중요, 열심, 만무 등의 단어를 그 의미적 특성에 근거하여 명사로 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고, 동이 나다나 줄이 쭈신다, 산통을 깨다, 어처구니가 없다 류의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데 쓰인 명사들은 의미의 특성을 포착하기 전에, 어원을 탐색하는 별도의 연구가 없이는 그 의미 자체를 밝히는 것만도 힘든 일이다.

— 대체로 학계나 사전기술에서 명사(또는 관형사, 또는 명사/관형사의 이중범주어)로 분류되고 있는 -적 파생어류(인간적, 과학적, 경제적, 호의적, 적대적, 인적, 단적, 전적) 역시 그 의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품사를 한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들 부류의 단어는 -적에 선행하여 어기의 역할을 하는 요소의 의미특성에 따라 두드러진 의미의 편차를 보이는데, 사물을 나타내기 보다는 사물과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과학적, 경제적), 오히려 -적에 선행하는 어기(과학, 경제)가 사물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2)와 같은 명사의 의미적 정의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인데, 그렇다고 명사 부류의 공통된 의미특성에 대한 성찰이나 탐구가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고, 이 문제가 현 단계로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쟁점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둘 뿐이다.

2. 명사의 정의: 형태·통사적 기준

품사분류의 근거가 되는 또 다른 기준은 단어의 형태론적 특성(더 정확히 말하자면, 굴절형태론에서 다루는, 문법범주에 따른 단어의 형태적 변이의 체계와 양상)과 다른 단어와 대응되어 문장을 구성할 때 보이는 특징적인 형태, 다시 말해서 문장의 직접 구성 성분으로서의 구를 구성할 때—또는 문장을 구성할 때—, 단어가 보여주는 통사적인 특성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도·유럽어족의 외국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경우, 명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론적 특징을 갖는다.

— 명사는 격변화를 한다. 독일어의 모든 명사는 문장 속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문장 내에서 그 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구별하여 표시하는 네 가지 격 형태 중의 하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 명사에는 단수/복수의 수 범주의 표지가 붙어야 한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모든 명사는 반드시 단수 아니면 복수 형태로 문장에 사용된다.

— 명사에는 문법적인 성(gender)의 구별이 있을 수 있다. 독일어의 모든 명사는 반드시 남성/여성/중성 명사 중의 하나이며, 프랑스어의 모든 명사는 반드시 남성/여성 명사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또한, 명사 앞에는 관사가 선행하여—이 점은 구 수준에서 주어진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맺는 형식적 관계의 양상에 관련된 특성이 될 것이다—, 관사의 형태에 따라 명사가 한정적 인지/비한정적인지, 말하자면,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한정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반드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언어의 명사는, 내재적으로 격, 수, 성 등의 문법범주가 실현되는 부류의 단어, 그러한 문법범주의 표지에 의해 형태론적으로 특징지어지는 부류의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관사의 사용에 의해 한정성이 표지되는 특징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는 이러한 형태론적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가 명사 자체의 형태변이는 없고—책이나 학생은 문장 내의 어떤 환경에 쓰이더라도 항상 형태상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른바 교착어로서의 특성을 보여 명사 뒤에 다양한 후치사(또는 조사, 일부는 학자에 따라 접미사)가 형태소로서의 명확한 경계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이룰 수 있다.

(5) 학생-들-끼리-만-으로-도

문법적인 성의 구분이 없는 것은 자명하고, 복수성의 의미를 명시화하는 -들은 그 사용이 필수적이거나 체계적이 아니어서(한국어 문장에서는 -들 표지가 뒤따르지 않는 명사도 얼마든지 복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영어나 독일어 등의 복수표지와 대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들은 명사 이외에 (6)의 예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조사 -는, -도, -만과 아주 유사하게 부사와 결합될 수도 있고, 합성동사(돌아가다)의 구성성분을 쪼개고 삽입되기도 하며, -요처럼 문장을 종결시키는 동사활용형 뒤에 붙을 수도 있다.

(6) 이제 그만들 돌아들 가십시다들.

이렇게 한국어 명사에는 수의 대립(단수/복수)에 따른 형태의 변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명사는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복수표지와 양립가능성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가산(countable) 명사와 비가산(uncountable) 명사 사이의 구분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후치사(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7) 학생-이, 학생-을, 학생-에게, 학생-과, 학생-으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한국어 명사의 행태를 격변화 체계가 존재하는 언어에서 명사문법범주로서의 격의 실현과 대등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이 분석할 수만은 없다.

한국어 명사는 (8)에서와 같이 격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장구성요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9)에서와 같이 보통 격조사로 기술되는 -의 /-간나 -을/-를이 명백히 문법기능표지가 아닌 보조사(특수조사)의 쓰임을 보이기도 한다.

(8) 아직도 비 오니?/너 이 책 읽어 봤니?/오늘 학교 안 가지?

(9) 가. 바빠 죽겠는데, 차가 영 빨리-(를) 가지-(가+를) 않더라구.

나. 그 친구는 조금도 마음이 너그럽지-(가+를) 않아.

다. 그는 말하기를, 울적할 때면 정처없이 길거리를 쏘다니곤 했다고 했다.

라. 가만히 있을 것을 괜히 그 말을 꺼냈다가 일이 꼬이기만 했네.

마. 집안이 너무나 조용을 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한국어에는 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사의 한정성/비한정성이 관사에 의해 규칙적으로 표현될 수 없고, 그렇다고 명사 형태의 변이에 의해 이와 같은 의미의 대립이 문법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더욱이나 아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어 명사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격변화, 문법적인 성의 구별, 단수/복수의 대립 등의 부재, 한 마디로 명사의 곡용(declension)의 부재라는 부정적 속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해 동사는 그 어간에—어간은 단일 형태소로 구성될 수도 있고(걷-, 믿-, 댕-) 여러 유형의 형태소 복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잡-히-, 울-리-, 도망-치-, 마주-치-, 되-돌아-오-)—존칭, 시제, 문의 양태 등의 문법범주를 실현시키는 각종 선어말/어말어미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풍부한 형태의 변이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위의 (4)에서 동사 빚-은 그 의미적 특성보다도 우선적으로 빚-으시-니다, 빚-었다, 빚-니(의문형), 빚-은, 빚-으니, 빚-고 등의 활용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을 명사 빚과 구분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명사부류를 정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적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격과 같은 문법범주에 따른 단어 형태의 규칙적 변이 가능성이 아니라, 구 구성의 차원에서 격조사와의 결합가능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단어가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면 그 단어는 명사구 구성의 중심으로,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서술어에 대해 주어나 여러 유형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 마디로 한국어 명사는 (10)과 같은 구/문장 구성 수준에서의 형식적 특성에 의해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10) 명사에는 격조사가 반드시 후치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지적할 것은, 이 속성은 단순한 조사와의 양립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치사라는 유형론적 범주로 한데 묶일 수 있는 조사 중에서 특히 문법기능 표시와 무관한 보조사 -는, -도, -만 등은 명사부류 이외의 단어나, (11)에서와 같이 단어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요소와도 폭넓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사부류를 특징짓기 위해서는 (7)에 예시한 바와 같은 격조사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물론 한국어 격조사 목록은 이보다 더 확장될 수 있다).

(11) 조용-은 하지만/조용-도 하구나/조금 더 조용-만 하면

(11)의 조용은 격조사가 뒤따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로 분석될 수 없다.

한국어 명사가 지닌 구 구성 수준에서 또 하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

이다.

(12) 명사에는 관형사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수식 성분이 선행한다.

(12)는 명사부류가 존재하는 다른 모든 언어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명사에 선행할 수 있는 수식 성분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3) ㄱ. 관형사

(이+두+모든+새+어떤) 학교

ㄴ. 명사/대명사+의

(선생님+나)-의 책

ㄷ. 명사

프랑스어 책, 반대 운동, 해외 여행

ㄹ. 형용사, 동사

(지루한+바쁜) 하루, (걷는+뛰는) 아이

ㅁ. 절(관계절/동격절)

친구가 쓴 책/그가 도착한 사실

(13)ㄷ에서 보이듯이 명사가 다른 명사에 직접 선행하여 수식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점은 한국어 명사의 기능적 특성으로 별도로 지적해 둘 만하다. 한국어 명사의 마지막 또 하나의 형식적 특성으로 (14)를 들 수 있다.

(14) 한국어 명사는 -이와 결합하여 문장 구성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다.

(15)는 이러한 명사의 사용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사례이다.

- (15) 이것은 나의 안경이다/그는 아주 미남이다/그는 힘이 장사다/
우리는 내일부터 방학이다/나도 그 일에는 반대다/
기영이가 곧 돌아올 모양이다/내가 읽은 것도 바로 그 책이었다

여기서 문제되는 독특한 한국어 요소 -인은 이른바 계사(copula)가 존재하는 언어에서의 계사와 그 기능이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상당 부분 있으므로, -인 구문에서의 명사 실현과 관련된 (14)의 특성은, (12)와 비슷한 정도로, 유형론적으로 일반적인 명사의 속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인 구문의 명사에는 문법기능 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인 앞에는 계사 구문의 성격과 대응시킬 수 없는 명사 부류 이외의 다양한 범주의 요소나 표현—형태소/단어/구/절에 걸쳐—들이 쓰일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인 구문의 이러한 면을 드러내 주는 예문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 (16) 그 녀석 아주 제법이네/나도 한때는 그 일에 꽤 열심이였지/
기영이가 그랬을리(가) 만무다/동생은 묵묵부답이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학교 앞의 다방에서였다/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방학이 다 지나고 나서였다

이제까지 한국어 명사는 단어의 내적인 구조나 문법범주에 따른 형태상의 변이를 다루는 형태론의 면에서보다는, 단어보다 상위의 통사단위인 구의 구성에 작용하는 통사론—구가 대응하여 절이나 문장을 구성하는 차원의 통사론이 아닌—의 수준에서 (10), (12), (14)와 같은 형식적인 속성에 의해 적절히 특징지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특징에 의해 명사와 함께 체언이라는 상위 범주에 묶일 수 있는 대명사나 수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3. 명사 한정어 문제

그 동안 학계에서의 품사론 논의나 사전편찬 영역에서 명사범주의 한정어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견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단어 또는 단어 구성요소의 몇 가지 부류의 범주 문제를—문제거리 부류를 총망라한 것은 아니다—(10), (12), (14)의 특성에 비추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조용 부류

이 부류는 대체로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이거나(이 때 -하의 지위에 대해서는 파생접사로 분석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하를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의 -하와 동일한 형용사로 보아 조용하다를 파생형용사가 아닌 합성형용사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조용하기는 하지만), 접사 -이/-히에 의해 부사로 파생이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난감, 난처, 무난, 치량, 치찰, 화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부류의 두드러진 특징은 (11)에서 본 바와 같이, -하 연쇄를 이루는 경우, 보조사나 -들에 의해 분리되어 부분적인 자율성을 보이는 데에 있다(이와 같은 분리 가능성은 또 한편으로 -하에 대한 파생접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어떻게 파생접사가 어기와 분리되어 자율적인 쓰임이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공부하다와 같은 복합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즉, 이러한 복합어에서 -하는 동사파생접사가 아니라 동사의 지위를 갖는 요소로 분석이 가능하며, 그 경우, 공부하다는 도망치다나 애먹다와 같은 계열의 합성동사로 특징지어 질 것이다). 조용의 경우는 조용조용과 같은 첩어도 구성하고, 이것을 어기로 하여 조용조용히와 같은 복합적인 파생어 형성이 또 가능하다. 한국어 단어구성체계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요소가 상당수에 이른다. 일부 사전에서는 일관성 있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명사로 범주화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요소는 (10), (12), (14)의 속성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행태를 한다. 따라서 명사로 분류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명확한 공통의 특성—

문법적 의미가 아닌 개별적이고 특정적인 어휘적 의미를 갖고, 파생 또는 합성 등 어휘 형성 과정에서의 어기와 같은 적극적 역할을 하며, 보조사나 -들에 의한 자율적 용법이 가능한 점—을 보이는 이들 요소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간행)에서의 기술과 같이 어근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어근 범주의 개념을 확대하여 여기에 다음에서 검토하게 될 요소의 일부와 또 다른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예컨대, 기-, 준-, 또는 선-, 용- 등 하-와 결합하여 합성동사나 합성형용사를 이루는 단음절 요소, 소곤소곤, 차근차근과 같은 첩어를 구성하는 어기, 구축함이나 외국인에서 -함, -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접미사로 기술되어 온 일부 단음절 한자어 요소 등등).

— 국제 부류

여기에는 강력, 급성, 주요, 중대, 직접, 민주 등 이외에도 반정부, 반사회, 반민주, 대북, 친북 등과 같은 복합요소가 포함된다. 이들 부류 역시, (10), (12), (14)의 특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분명 명사로 특징짓기는 어렵다. 조용 부류와 마찬가지로 -하, -이/-히와 결합하여 각각 형용사/부사로 쓰이는 요소도 있고(강력하다, 강력히), -적 파생어의 어기로 쓰일 수도 있으며(국제적, 직접적), 또는 합성어 구성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중대사, 민주주의) 공통점은 다른 명사 앞에서 수식/관형 기능을 할 수 있는 점이다.

(17) ㄱ. 국제 (사회+연대+협력)

ㄴ. 중대 (발표+결정+사안)

이 부류를 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관형 기능의 담당 가능성뿐이다. 바로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하와의 결합이나 -이/-히 부사파생은 명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적 파생 역시 명사성 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노골적, 가급적, 단적, 인적), 이러한 속성은 이들 요소의 명사성

판단의 논거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성과 같은 경우, 이들 요소와 유사하면서도 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예 만성이 되버렸다와 같은 표현에서 격조사 -이와의 결합 가능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국제 부류를 관형사로 범주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관형사로 볼 경우, 관형사+하의 합성어나 관형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어의 구조를 인정해야 하는 중대한 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부류 역시 조용 부류와 같이 어근 범주로 한데 묶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가능성이 아닌가 한다 (한국어 어휘체계에서 단어 또는 형태소 부류로서의 어근 부류 설정의 문제는 명사 한정어 문제와는 별도로 깊이 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 열십 부류

이 부류에는 만무, 가관, 십상, 일쭉, 미간, 미정 등을 넣을 수 있겠다. 십상은 부사로도 쓰이고, 만무는 -하 형용사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명사 특성에 대해 (10), (12)의 속성에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면서 (14)의 속성만을 보이는 요소들인데, (14)에만 의거하여 이들을 명사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16)의 사례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구문에 실현되는 요소나 표현의 범주는 명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열십과 같은 요소를 명사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현재로서의 대안은 이들 역시 어근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제류의 강력이나 분명, 또는 적극과 같은 어근은 부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강력 대처하다, 적극 지원하다), 십상의 부사적 용법은 예외적이 아니다. 이들의 경우 어근과 부사로 이중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열십의 경우, 열십이 아니다와 같이 -이 구문의 대응 부정문에서 -이/-가 앞에 사용되기에, 이를 근거로 명사로 분석할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가 역시 (9) ㄱ-ㄴ에서 보인 바와 같이 또 (18)의 아니다 구문에서처럼 부사 뒤에도 쓰이고, 후치사나 절 뒤에도 쓰이기 때문에 열십의 명사 판정에는

좀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

(18) ㄱ. 그렇게 천천히가 아니고 약간만 느리게

ㄴ. 그와 마주친 것은 분명 그 극장 앞에서가 아니었다.

ㄷ. 내가 거기 가려는 것은 그 여자를 만나러간 아니야. 넘겨짚지 마.

— -적 파생어 부류

-적 파생어의 경우, 비교적, 가급적과 같이 부사로 쓰이는 예를 제외하면,

(13) ㄷ의 구성과 같이 명사에 선행하는 수식(관형)요소로 쓰이고, 조사 -로와 결합하며, -이 구문에 사용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실은 -적 파생어는 -이 구문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동질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인적, 수적, 결과적, 국가적 등은 -이 앞에 오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에 근거하여 이들을 명사로 범주화하거나, 또는 명사구 구성 성분의 경우는 분리하여 관형사로 보아 이중범주의 단어로 특징짓기도 한다. -적 파생어는 명백히 (12)의 속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지만, (10), (14)의 속성은 그것의 명사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따져보면, -로와 결합하는 요소 중에는 날로(생으로), 새로, 별로, 고로에서와 같이 명사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적으로 연쇄는 보통 문장 구성 성분으로서 필수 보어라기보다는 부사나 부사어 기능을 한다), -이 구문 분포 가능성은 앞서 지적한 대로 명사 범주화에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적 파생어의 범주적 지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적 파생어가 -로 이외에 격조사 -이/-가와 양립가능하며, 또 -적으로가 문장구조를 특징짓는 필수적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찰이 -적 파생어를 명사로 범주화하는 데 보충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기영이는 그 일 이후로 더욱 (소극적+이기적+호의적)-이 되었다

(20) 그의 태도는 아주 (적극적+배타적+적대적)-으로 변했다

— 압전 부류

이 부류에는 점잔이나 부지런, 건방, 비릇, 이룩, 해당, 연연, 끄떡, 불사 또는 그지 등의 요소를 소속시킬 수 있다. 이들 요소는 주로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구성하거나, -하/-되와 결합하여 동사를 구성한다(그지는 없다와 연쇄하여 합성표현을 이룬다). (12), (14)의 속성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격 조사와 함께 자율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관찰하기 쉽지 않아, 사전기술에서는 이들 요소를 따로 분리해 내어 범주를 부여하지 않고 암암리에 압전하다, 압전히, 비릇하다, 해당되다, 그지없다 등과 같은 형용사/동사의 구성요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12), (14)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10)의 속성에 대한 행태를 검증해 보면 모두 격조사 -을/-를이나 -이/-가와 결합하여, 동사구문의 주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21) 점잔을 (빠다+부리다)/압전을 (빠다+떨다+부리다+피우다)/
부지런을 (떨다+피우다)/(비릇+이룩+해당)-을 하다/
(비릇+이룩+해당)-이 되다/끄떡을 안 하다/그지가 없다

따라서 이들 부류는 결합가능한 격조사가 -을/-를이나 -이/-가로 제한되어 있고, 그러한 결합형의 사용빈도도 낮아서 명사로서의 용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범주적 지위는 분명히 명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동이 나다 류의 관용표현 속에 나타나는 일부 명사는 여타 자유표현에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명사는 (12), (14) 속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자연히 격조사의 결합 폭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한국어 단어 중에는 반드시 관용표현에서가 아니더라도 그 격조사 결합의 폭이 자유롭게 열려 있지 않고 제한된 경우를 많이 관찰할 수 있다. (22)-(23)은 -이/-가나 -을/-를과의 결합만 가능한 명사를, (24)는 -이/-가, -을/-를과의 결합만 가능한 명사를 보여준다.

- (22) 득의가 만면하다/유서가 깊다/과언이 아니다/어폐가 있다/

금슬이 좋다/손색이 없다/능사가 아니다

(23) 버림을 받다/따돌림을 (받다+당하다)/명심을 하다/빈축을 사다/
만전을 기하다/마다를 하다/어깃장을 (놓다+부리다)/선수를 치다/
상종을 안 하다/좌시를 하지 못하다/심혈을 기울이다

(24) 주가 되다/주를 이루다//차질이 생기다/차질을 빚다//
마각이 드러나다/마각을 드러내다//악명이 높다/악명을 떨치다//
치가 떨리다/치를 떨다

(25)-(27)은 각각 조사결합가능성이 -에, -에서, -로, -의 등 하나로만 (또는 둘로) 제한되는 명사의 예를 보여준다(경우에 따라서는 -의가 뒤따를 수 있다).

(25) 미구에, 미연에, 얼떨결에, 반면에, 동시에, 진작에, 단번에, 일
시에, 줄지에, 근자에, 염두에, 만일-(에+의), 만약-(에+의),
도처에(서), 즉석에서

(26) 구두로, 무시로, 무위로, 서면으로, 수시로, 이구동성으로, 임의
로, 백방으로, 필설로, 도보로, 대대로, 무작위로, 공동-(으로+
의), 별도-(로+의)

(27) 불굴의 (의지), 간발의 (차이), 입추의 (여지), 일루의 (희망),
청운의 (꿈), 불후의 (명작), 박빙의 (접전), 묘령의 (처녀), 천
고마비의 (계절), 가공의 (인물), 저간의 (사정), 천추의 (한),
희대의 (사기꾼), 모종의 (음모)

우리가 한국어 단어 중 명사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다 살핀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명사의 가장

공통적인 형식적 특성은 (10)의 속성이라고 보겠다. 관형성분의 실현이라는 속성 (12)는 모든 명사에 공통된 것은 아니다. 의존명사는 바로 관형성분의 필수성에 의해 특징지어지지만, -적 파생명사는 전적으로, 격조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인 (25)-(27) 부류의 명사들은 대체로 관형성분을 거부한다. 또한 일부 -적 파생명사나 (25)-(27) 부류의 명사들은 (14)의 속성에 대해 부정적 행태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인 구문을 구성할 수 없다.